

자금심의 기독교적 재현

차별금지법 제정 등 그간 논란이 되었던 동성애자 관련 이슈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배제를 멈추고 정상성 내부의 특권적 지위를 공유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검증되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수사 속에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차별과 배제, 억압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리고 인정받아야 할 보편의 가치인 '사랑'을 저항과 투쟁을 통해 획득해야만 하는, 급진적인 정치 용어로 만들어 버렸다. 한국 사회는 동성애자에 대해 익숙하지도, 수용적이지도 않다. 한국 사회, 특히 사랑의 종교라 불리는 기독교가 다소 서툴고 어렵더라도 이 낮은 이들을 윤리적인 태도로 대할 수는 없을까? 앞선 역사와 맥락을 살펴보는 조심스러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혐오로 인해 분절되고 왜곡된 동성애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 스

스로 이루어온 해방의 역사가 진술하는 성소수자의 가치와 자의식을 존중하는 것 말이다. 물론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인인 동성애자들이 있고,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혐오와 차별에 맞서며 동성애자들의 사랑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동성애자의 존엄을 인정할 뿐 아니라 기독교가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차별한다는 편견을 깨는 소수의 집단이기도 하다. 혐오일색인 한국 기독교 내 동성애에 담론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의 왜곡된 프레임, 반론의 여지가 없는 획일화된 전선/담론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스톤월의 첫 용기와 그날의 자금심을 한번 더 요청하는 일이 될 것이다.

- 1) 미셸 푸코 (2004). 성의 역사1: 얇은 익지, 나쁜.
- 2) 애너메리 야고스 (2012). 퀴어이론 입문. 도서출판 어이언.
- 3) 같은 책.
- 4) 60년대 뉴욕에서 경찰이 게이 바를 급습하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성소수자들을 쫓아내고 체포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1969년 6월 28일 경찰이 어느 때와 다름없이 뉴욕의 허름한 게이 바 '스톤월 인'을 급습하였을 때, 손님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대신 불평등과 슬로건을 외치며 시위하였다.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존재를 드러내고 탄압과 혐오에 저항한 이날은 성소수자들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구성되었음을 가리키는 날로서 기념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스톤월 항쟁의 집단적인 저항의 경험을 자금심 프레임들을 통하여 기억한다.
- 5) 퀴어문화축제 직전 '신촌 동성애 뺑스 카페'에서 반대 일만 명 국민대회라는 헤드라인의 인터넷 기사가 복수의 개신교 기반 인터넷 언론사에서 복제되어 배포되었다. 이들은 이름의 선정적인 부양사처럼 노골적인 말들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신촌(대구) 동성애반대청년연대와 같이 행사의 성격도, 주최도 모호한 다수의 집회와 연대체가 생겨났다. 예수재단, 에스더가이든운동본부, 율리야리프 등 주요 이슈마다 반동성애 운동들을 벌이던 이들에 더해 한국의 대표적인 우익단체인 대한민국어바이어연합도 관여했다.

- 6) '동성애는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라는 혐오세력의 핵심 논거는 잘못된 주장이다. 1952년에 처음 출판된 정신질환분류(DSM)에서는 동성애(homosexuality)가 질환으로 등재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의학적, 성 과학적, 심리학적 연구들과 인권운동을 거쳐, 1990년 5월 17일,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이로써 동성애를 질병이라고 주장할 의학적 증거와 지식은 없다. 성소수자들은 이날을 아이다호 데이(IDAHO-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 7)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동성애자 인권보호와 성적 지향을 존중하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사회권규약,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성소수자 인권옹호 담화, WHO의 질환삭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그보다 앞선 토론이 있다. 특히 올 6월 미국 장로교(PCUSA)가 미국 루터교의 뒤를 이어 목사들의 동성결혼 주례를 교단 차원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기독교계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 8) 토리 (2012). 뛰는 혐오, 나는 인권: 성소수자 혐오, 공격 넘어서기 좌담회 자료집 중 '혐오세력 무시하기 혐오 공격 넘어서기'
- 9)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차별 규정인 군형법 제92조의 6조항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자의 인권보장 내지는 침해에 관련한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법률과 조례 제정 이슈에는 빠짐없이 등장하여 혐오담론을 생산해 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앞장서 왔다.



김하나 연구집단 카이로스 연구원(<http://cairos.tistory.com>), 대학원에서 여성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은 섹슈얼리티와 종교, 교회의 가족중심성이다. 가족 혹은 남성과의 관계맺음 속에서만 여성에게 정상성과 여성됨을 허락하는 이성에 중심주의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성주의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동성애, 너와 나를 인정하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김원평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실행위원장)

혹시, 이것도 알고 있나요?

6월 12일 전국 고등학교들이 치른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성적소수자(동성애자)와 동성결혼에 관한 문제 세 개가 출제되었다. 그런데 세 문제 모두 학생들로 하여금 동성애자와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즉, 성적소수자를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외국의 추세이고 옳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다. 도덕교과서 집필기준에 동성애자 인권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 주장이 실리게 되었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사들이 편파적으로 문제를 출제한 것이다. 또한 6월 7일에는 서울 신촌에서, 6월 28일에는 대구에서 퀴어축제(동성애자 축제)가 열렸다. 엉덩이를 드러내며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저 음란 공연에 불과해 보인다. 이러한 집회가 가능한 것은 동성애자 집회를 차별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권고와 진보 성향 국회의원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퀴어축제가 미국 대사관도 부스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다른 나라 윤리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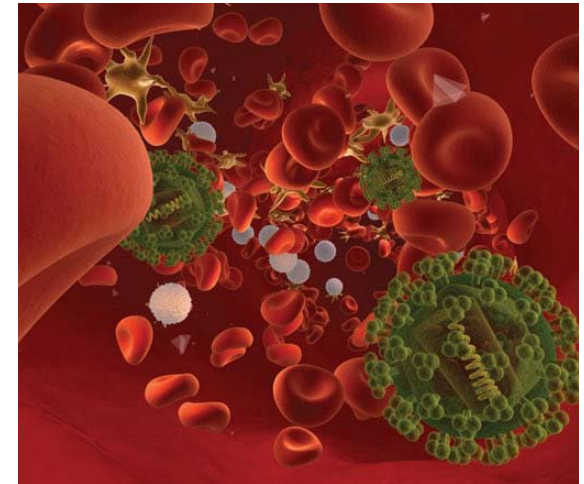
편집자주, <월드뷰>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소개합니다. 이는 본지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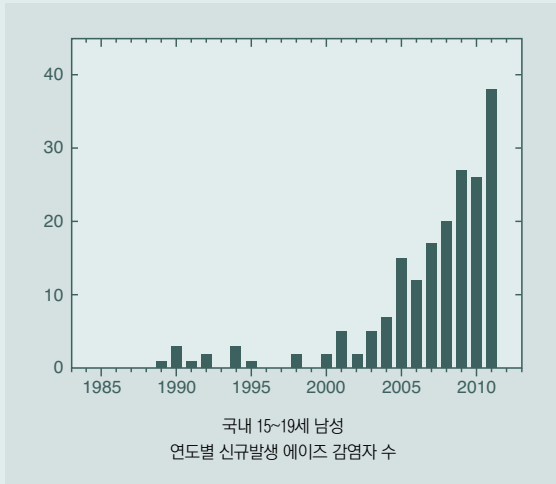
이처럼 한국 사회에 동성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살펴보겠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결혼제도 안에서의 성관계만을 허용하셨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 동성에 행위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가증한 죄악으로 명시하였다. 서구에 동성애가 확산된 것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대표적인 근거를 들자면, 동성애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므로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녀를 적게 낳는 (또는 낳지 못하는) 행동양식은 결코 유전적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행동양식을 갖게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 자녀를 적게 낳으면, 그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적게 전달된다. 결국 그 유전자를 가진 집단은 사라지게 된다. 동성에 성향이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에 일치 비율이다. 동성에 성향이 유전자 또는 태아기 호르몬에 의해 결정된다면, 같은 유전자를 지니고 같은 자궁에서 영향을 받은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에 일치 비율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2000년에 조사한 남성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에 일치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동일한 유전적, 선천적 영향을 받은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에 일치 비율이 낮다는 것은 동성에 성향이 유전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이다.

치유가 불가능하니 용납하고 인정하자?

동성에 옹호자들은 동성에 성향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동성애는 정상이며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사람의 행동양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의지가 몇 % 관여하고 의지와는 상관없는 요인이 몇 % 관여하는지,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다. 인간은 로봇이나 기계와 달리 요인에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반응하므로, 모든 행동양식의 형성에 의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동성에 성향이 어린 나이에 형성되므로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은, 아이의 마음에 의지와 무관한 요인에 의해 동성에 성향, 즉 동성애의 씨앗이 형성될 수는 있지만 그 씨앗이 자라 성인 동성애자가 되는 과정에 자신의 선택과 의지가 관여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릴 때의 동성에 성향을 핑계로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16살에 자신을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라고 답했던 학생의 대부분이 1년 후에는 이성애자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마음에 형성된 동성에 성향은 매우 유동적이며 의지와 절제력에 의해 충분히 교정가능하다. 따라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은 동성에 성향을 강화시켜 성인 동성애자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인체, 특별히 성 기관을 다르게 창조하셨고, 그것의 결합으로 성행위를 하도록 만드셨다. 동성에 행위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섭리, 즉 인체구조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다. 남성 동성애자는 평균과 바이러스가 많은 항문에 성행위를 하여 다양한 성병, 합병증, 항문·직장의 궤양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또 괄약근이 약해져서 하루에도 열 번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되며 지저귀를 해야 한다. 항문 바로 위의 직장은 얇은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작은 충격에도 상처가 생겨 쉽게 질병에 감염된다. 이처럼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이 잘 걸리지 않는 질병에 노출된다. 참고로 한국의 남성 동성애자는 0.2% 정도인데, 국내 매독 환자의 21%가 동성애자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섭리, 즉 인체구조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성행위임을 보여준다. 에이즈 관련 논문들은 에이즈 고위험군으로 남성 동성애 집단과 윤락여성을 선택하는데, 서울대 보고서는 약 70%가 남성 동성애 집단에 의해 감염된다고 추정했다. 에이즈 감염자 수가 최근 10년 동안 4배 증가했고, 현재는 2~3만 명으로 추정된다. 1년 의료비를 이천만 원으로 가정하면, 동성애로 감염된 14,000~21,000명(2~3만 명 × 70%)의 의료비는 2,800~4,200억 원에 이른다. 영국의 인구는 6,400만으로 우리와 비슷한데, 동성애자 수와 에이즈 환자의 수가 우리의 열 배 정도이다. 영국처럼 에이즈 환자의 수가 증가하면 수조 원의 의료비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세금 폭증으로 이어진다. 국내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약 10%로, 일반인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의 약 180배이다. 즉, 남성 동성애자 열 명당 한 명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15~19세 남성의 에이즈 감염자 신규 발생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을 전후하여 급격히 증가함을 볼 수 있다. 2003년에는 5명에 불과하던 청소년 에이즈 환자의 수가 2011년에는 38명으로, 8년 동안 대략 8배 증가한 것이다. 청소년 에이즈 환자 중 57%가 동성애자이다. 최근 문화·교육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청소년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참고로 2011년 미국의 13~24세 남성 에이즈 감염자 중 94~95%가 동성애 행위로 감염되었다고 한다. 청소년에게 동성애 행위와 에이즈의 상관관계 등과 같은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해 두지 않으면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수가 증가할 지도 모른다. 에이즈와 동성애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이유는 항문성교와 난잡한 성관계 때문이다. 1978년 조사에 따르면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32%가 100~499명의 남성과, 43%는 500명 이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대다수의 파트너가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는 치유가 불가능하므로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성애자들에게도 여러 등급이 있다. 동성애 행위를 몇 번 경험한 사람도 있고, 깊이 빠져 중독된 사람도 있다. 술을 가끔 마시는 사람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동성애 행위를 몇 번 경험한 사람은 쉽게 빠져 나올 수 있지만, 중독 상태가 된 사람은 끊기가 매우 어렵다. 끊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동성애 행위를 정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이것은 알코올 중독에게 끊기 어려우니 계속 술을 먹으라고 권장하는 것과 같다. 또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불가능한 것

도 아니다. 실제로 동성애에 깊이 빠졌다가 치유 받은 사례들이 적지 않다. 또 치유받은 후 동성애에서 벗어나려는 자들을 돕는 전 동성애 단체들도 많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가 치유 불가능한 것처럼 홍보함으로써 거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끊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버린다. 동성애자의 삶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동성애자들이 동거하는 평균기간은 약 2.5년이다. 에이즈가 발견된 후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친구들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모르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다. 이것은 그들의 행위가 중독임을 보여준다. 동성애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에 시달린다. 일반인의 2배나 알코올에 의존적이며,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3배나 자살 시도를 많이 한다. 남성 동성애자 수명은 일반인보다 25~30년 짧으며 알코올 중독자보다도 5~10년이 짧다. 이렇게 수명이 짧은 것은 난잡한 성관계로 인해 에이즈와 각종 질병에 감염되기 때문이다. 동성애자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 따라서 동성애를 계속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은 동성애를 끊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행위이므로 담배에 경고 문구를 넣듯이 그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동성애 차별의 문제인가?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동성애 차별 금지는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하고,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 행위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차별 금지법에 넣게 되면 다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동성애를 비윤리적, 비정상 또는 죄라고 표현하면 처벌받는다. 동성애를 나쁘다고 말하면 직장에서 해고되고 벌금을 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설교 중 동성애를 죄라고 해도 처벌받는다고 한다. 둘째,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니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켜도 징계할 수 없고, 동성애 단체를 결성하여 공개 모집해도 어쩔 수 없다.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할 수도 없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은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방법까지 가르친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치므로, 한 세대가 지나면 모두 동성애를 인정하게 된다. 셋째,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 동성애 커플의 웨딩 촬영을 거부하거나 방을 주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지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결국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언론이 과연 심판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외국과 동성애를 미화·옹호하는 매스컴의 영향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집요한 노력 등의 산물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영향이 큰데, 2005년 인권위 보고서를 살펴보면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 개정, 교과서 개편, 동성결혼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고, 이성애 중심의 교육과 미션스쿨의 호모포비아 등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12년에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도덕교과서가 만들어졌지만, 국민의 향의로 2013년에 시정되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2003년에 동성애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물 지정에서 삭제할 것을, 2006년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고, 2010년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 형법을 폐지하라는 의견서를 냈다. 또, 2011년에는 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애가 에이즈 등의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기사를 쓰지 못하게 했다. 인권위법에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속히 인권위법을 개정하여, 인권위가 동성애 옹호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동성애에 대한 바른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는 보도준칙을 수정하여 동성애를 옹호하는 언론의 영향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언론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급하다. 또한 도덕교과서 집필기준을 공정하게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넣고, 교사들이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홍보해야 한다. 또 언론, 교육, 정부 각 영역에 형성되고 있는 동성애 옹호 분위기를 막기 위해 각계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적극 후원하고, 전문가들은 논문과 책자를 발간하여 동성애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려야 한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니, 최선을 다한다면 동성애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국가 대부분은 포르노를 합법화하여 성적 타락을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들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선진국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가 동성애이다. 네덜란드와 미국 몇 개 주는 마약을 합법화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이 건전한 성윤리를 유지하는 본보기가 되는 국가로 우뚝 서서 서구의 무너진 성윤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기대하신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더 알기 원하신다면,
 <네이버 웹툰> 동성애자의 앙심고백
<http://comic.naver.com/challenge/detail.nhn?titleid=628882&no=1>



김원평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SB)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부산대 교수이며, 초광교회 장로이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실행위원장, 동성애문제대책위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다.